스포츠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동향 및 과제

- 스포츠사회학 관점을 중심으로 -

구 창 모*

- I. 서 론
- II.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의미
- III.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현황 및 문제점
- IV. 앞으로의 과제

I. 서 론

오늘날의 스포츠는 급속히 변모 발전하는 현대산업사회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 인식되어 오던 스포츠와는 달리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전체사회의 변동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가치를 전체 사회의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주는 유형화된 제도로서 발달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및 태도를 수용하고 내면화시키는 중요한 사회

제도 및 메카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규범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수단을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현대사회의 사회적 심리적 아노미와 문화지체 현상으로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 그리고 이상행동은 날로 증대되고 그 양상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연구에 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의 개념 및 측정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때문에 비행율에 대한 조사나 비행이론의 검증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체육학내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에서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스포츠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 사회학내에서의 청소년 비행 연구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행의 정의 및 비행 유형의 분류기준에 대한 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와 괴질이 비교적 높은 '숨은 비행'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그리 전문적이거나 활발하게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 사회학에서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는 일반청소년들의 비행 여부가 스포츠 참가 전과 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의 원인 규명보다는 일반적으로 운동선수과 비운동선수 집단간의 비행 차이를 검증하거나 운동선수집단의 비행 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술적 *descriptive*이며 사회구조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역에서 밝혀진 이론과 결과를 고찰할 때 스포츠 참가자의 인구 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비행의 관계,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의 차이, 남녀간의 성차,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집단내에 존재하는 비행수준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할 지 모르나,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인과적 관계를 총체적, 경험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스포츠가 지니는 기

능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억제책으로서 스포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스포츠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스포츠 참가와 비행행동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의 시도는 사회화 영역내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사회화 과정에서 가치의 전달문제를 밝히려는데 있다. 만약 스포츠 참가와 음주, 흡연, 마약 등의 비행행동 관계가 스포츠 참가를 통한 가치의 내면화 결과라면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심리적인 과정은 어떠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첫째, 스포츠 참가의 유형 및 정의, 청소년기에 있어서 스포츠의 가치 및 기능, 청소년 비행의 정의 및 분류
- 둘째,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동향 및 연구결과의 의미들,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연구의 문제점
- 셋째, 앞으로의 연구 과제

II.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의미

1. 스포츠 참가의 유형 및 정의

스포츠 참가는 참가하는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진다. 스포츠 참가와 관련된 변인은 무수히 많으나 참가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는 크게 참가

내용 및 스포츠 장면에서의 역할에 따른 거시적 입장에서의 참가 형태에 의한 분류와 스포츠 자체의 활동 범위와 조직의 복잡성에 따른 참가 수준에 의한 분류 그리고 참가빈도, 기간, 강도 등에 따른 참가정도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스포츠 참가의 형태

(1) 행동적 참가

행동적 참가는 스포츠 장면에서의 수행 역할에 따라 1차적 참가와 2차적 참가로 분류된다. 1차적 참가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기자의 활동으로, 주전선수, 교체선수, 후보선수 등의 참가가 여기에 속한다. 2차적 참가는 경기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포츠 생산과 소비에 해당되는 참가 형태를 의미한다. 스포츠 생산자는 경기를 유치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접 생산자와 간접 생산자로 구분된다. 직접 생산자는 선수 처럼 직접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독, 코치, 심판, 저지, 트레이너, 의사 등을 말하며 간접 생산자는 경기 참여는 물론 결과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팀소유주, 프로모터, 스포츠 용품업자, 기술·서비스·안전요원, 치어리더 등을 의미한다. 한편 스포츠 소비자는 관람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직접 소비자는 스포츠 현장의 관람객을 말하며 간접 소비자는 매스컴이나 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와 관계를 맺고 있는 팬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포츠 소비자 집단의 특성으로는 스포츠 참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스포츠 전략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싶어하며 스포츠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McPherson, Curtis, & Loy, 1989).

(2) 인지적 참가

인지적 참가는 매스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각종 기관 등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지적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스포츠에 대한 기술, 전략, 규칙, 전적 등으로부터 팀과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정의적 참가

정의적 참가는 스포츠 장면에서 직접 참가하지는 않으나 특정 팀이나 선수 그리고 경기 결과에 대해 반응하는 감정적 성향을 말한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스포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듯이, 경기를 한 적이 없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스포츠에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즉, 어떤 선수나 팀에게 강한 집착을 갖는다면 자기와 동일시하는 사례가 흔히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정의적 참가의 예로 볼 수 있다.

2) 스포츠 참가의 수준

(1) 조직적 스포츠

조직적 스포츠는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스포츠 역할 학습이나 학습결과에 목적을 두고 스포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조직적 게임의 참가자는 스포츠 활동 자체나 개인적 관계에 흥미를 갖지만 중요한 경기의 결과와 개인 및 팀의 효율성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된다(Coakley, 1980). 경기에서 행위와 참가가 성인들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명확하며, 선수들의 활동 또한 특정화된 규범과 역할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조직적 스포츠 참가의 경험이 많은 학생은 사회화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에 대한 태도의 전문화는 조직적 스포츠

참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조직적 스포츠의 참가자들은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과 승리를 강조하는 반면, 비조직적 스포츠의 참가자들은 공정성을 강조한다 (Mantel & Velden, 1974).

(2) 비조직적 스포츠

비조직적 스포츠는 참가와 활동자체로서 만족을 얻으려는 자율적인 활동이며 구성원의 참가 정도는 각자의 자유의사와 경제적 여유 그리고 시간, 시설, 장소 등에 의하여 좌우되며, 특히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의 특성은 참가자간의 친분 관계, 팀의 구성 특성, 참가인원, 경기규칙의 적용 등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동진, 1988).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자들은 서로 간에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게임이나 유사 게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팀의 구성은 기능의 수준, 친분 형태에 의해 조직되며, 선수의 선정은 경우에 따라 유동적이며 경기규칙도 대체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만 활동과 참가를 극대화하고 경쟁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도 한다 (Coakley, 1980).

비조직적 스포츠의 참가에서 얻어지는 보상은 주로 내적 보상이지만 성취, 자아실현, 자기만족, 성공 등과 관계가 있으며, 외적 보상은 동료집단이나 구성원들로부터의 즉각적인 보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스포츠내의 사회적 계층 구조에 있어서 상위 계층에 위치한 선수가 의사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적 스포츠와는 달리, 비조직적 스포츠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과 가장 관련 깊은 사람이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스포츠 참가의 정도

스포츠 참가의 정도에 의한 분류는 참가의 빈도, 기간, 강도 등에 의해 일상적 참가 *normal involvement*, 주기적 참가 *cyclical involvement*, 이탈적 참가 *divergent involvement*, 소극적 참가 및 비참가 *withdrawal or noninvolveme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적 참가는 스포츠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패턴이 그들의 생활 패턴에 포함된 정규적인 참가를 말하며, 주기적 참가는 일종의 산발적인 참여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 1주일의 휴가)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이다. 이탈적 참가는 오직 스포츠에만 몰두하여 중독된 상태의 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모든 경기를 빠짐없이 관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끝으로 소극적 참가는 스포츠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라도 기회부족, 무관심, 소외, 불쾌한 경험 등으로 스포츠 참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Loy, McPherson & Kenyon, 1978).

2. 청소년과 스포츠의 가치 및 기능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스포츠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욕구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이 지닌 가치와 기능을 인식케 함으로써 청소년의 우발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정화시키고 이러한 태도를 장년기에 이르러서도 계속 견지하게 하여 신체와 정신의 균형있는 조화적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임번장, 1986).

스포츠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Levy(1952)는 아동기의 경쟁적 스포츠 참가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Lever(1976)와 Duquin(1977)은 아동기의 스포츠 경험은 대인경쟁, 리더쉽, 집단생활 및 전략적 사고와 같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조직기능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스포츠의 가치 및 기능을 각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가치와 사회정서적, 사회화, 사회통합, 사회이동, 문화주입 기능으로 분류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포츠의 가치

(1) 심리적 가치

스포츠 활동은 유희적 및 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서적 휴식이나 창조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중요하며 모든 청소년은 어떤 형태이든 신체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신체활동에서 학습되는 경험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스포츠의 심리적 가치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태도의 형성, 사회적응력 배양, 감각지각과 반응의 향상, 정신건강의 향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의 가치와 민주적 과정의 가치를 예시해주며, 집단활동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집단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가속한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집단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계없이,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스포츠는 국민정신을 표출하는 수단인 동시에 서로 이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나라간의 차이점을 신체적 의사소통을 통해 동질화시키며

국가결속을 유지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인격형성, 국민정신함양, 전전한 경쟁심함양, 충성심 및 인내심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3) 문화적 가치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표출시키는 수단이므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는 투쟁본능의 충족을 위한 욕구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Greetz(1972)는 스포츠가 사회학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가치, 신분체계 및 기타 문화적 제 측면을 조망해 줄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해 준다고 강조함으로써 스포츠가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사회 문화적 가치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회체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 활동, 여가추구를 용의주도하게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추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세뇌하거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고, 그밖에 국가가 의도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임변장, 1986).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의 문화적 가치는 사회통합 및 자기 통제능력배양 등을 들 수 있다.

(4) 신체적 가치

인간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의 활동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르며, 신체적 활동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때문에 마음껏 뛰고 활동하려는 충동에 예민하며 자기표현이나 자아의 실현으로서 활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것이며 이의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형태 및 기능의 발달적인 면은 물론 왕성한 체력의 유지 증진 및 건강향상이라는 본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스포츠의 신체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겠다.

2) 스포츠의 기능

(1) 사회정서적 기능

사회정서적 기능이란 개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즉 사회적, 심리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안정된 기능은 그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된 상태에 있는가와 관계가 깊으며,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안에서 규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행동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사회정서적 기능으로는 긴장과 갈등의 조절, 연대감 및 동질감 창출, 축제성 *ritualism* 등을 들 수 있다(Stevenson and Nixon, 1976).

(2) 사회화 기능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 지식, 규범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회체계로서의 스포츠를 전체 사회에 대해 의미있는 소우주 *microcosm*로 이해한다면(Kenyon and McPherson, 1981), 스포츠 사회화는 사회화의 일반적인 개념과 같이 스포츠라는 소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해 특정집단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유형지우고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많은 역할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화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는 관습과 신념의 반영, 강화와 모형의 역할, 사회화 주

관자로서의 기능 등을 열거할 수 있다.

(3) 사회통합 기능

Luschen(1967)에 의하면 스포츠는 실제로 참가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제도내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통합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 기능이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집단속으로 조화롭게 흡수하고 그 집단성으로서 개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참가에 있어 한 팀의 구성원이 되거나 클럽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을 그 팀이나 클럽속으로 통합하기에 충분한 대인 결속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집단은 팀이나 클럽의 형태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학교, 도시, 지역사회 심지어 국가의 형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들 집단과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보다 큰 집단속으로 통합된다.

(4) 사회이동 기능

사회이동이란 계급간의 움직임을 말하며, 스포츠의 바람직한 기능중의 하나로 상승적 사회이동을 들 수 있다. 상승적 사회이동이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계서열에서 전보다 높은 지위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임번장, 1986).

여러나라에서 스포츠가 보다 적은 혜택속에 있는 사회구성원 즉 가난하고 인종적, 민족적으로 열세한 집단에서 사회이동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Loy, 1969). 그러나 스포츠를 통한 사회이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으며, 어느 사회가 전적으로 귀속적이라면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스포츠를 통해 이동의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현대 산업국가가 본질적으로 성취지향적이지만 아직도 귀속

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다. 가장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도 그 주민중 어느 집단은 사회이동에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다(Harris, 1970).

(5) 문화주입 기능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스포츠 활동 특히, 놀이와 게임에 참가하여 얻는 경험은 일반사회 생활의 경험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이 점에 의해 특정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스포츠의 문화주입 기능은 개인적으로 심신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시키며, 여러가지 인간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사회적으로 사회 활동에 필요한 행동의 규율과 양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문화주입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는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일반 성취 사회의 지배적 가치이념을 제공하는 문화 주입에 기여함으로써 성인기에 성취 사회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Roberts & Sutton-Smith, 1962).

3. 청소년 비행의 개념 및 분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은 비행이론의 관점이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진다. 또한 특정 시대와 국가, 사회의 도덕과 전통 그리고 관습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고 같은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도 개인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그 견해가 상이하다.

청소년 비행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 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도덕 행위

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심리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욕구 불만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반사회적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김영모, 1983).

Cohen(1959)은 비행을 사회 체제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공유되고 있는 제도적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비행 또는 범죄를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은 규범적 제 측면에 위배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Durkheim(1951)은 비행 현상을 규범적 질서 *normative order*에 토대를 둔 규제력의 결핍 *deregulation* 혹은 규범 해체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기능적 상호의존에 의하여 통합된 사회는 일종의 제약된 사회이므로 기능적 상호의존성의 규칙을 어긴 것은 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칙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erton(1968)은 비행행동을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Hirschi(1969)는 한 개인의 관련된 행위가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규정된 규범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서 간주될 경우 이러한 행위를 비행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Becker(1963)는 한 개인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반응하는 것을 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행위의 숨은 비행까지 비행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Parsons(1951)는 행위가 일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련의 기대로부터 일탈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어떠한 특정 행위를 일탈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적인 준거점과 관련지어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Cloward와 Ohlin(1966)은 일탈

행위란 사회의 기본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비행의 분류 역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어 진다. 청소년 비행은 행동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잠재적 행동(일반 학생들이 흔히 과오나 유행에 따라 행하는 행동), 비사회적 행동(행위의 동기가 의도성은 적지만 그 결과는 사회도덕 및 윤리규범을 해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사회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민병근 외, 1978), 청소년 비행을 원인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비행, 인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적 비행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Weiner, 1982).

또한 실영희(1981)는 Merton의 아노미 이론 중 혁신, 퇴행형, 반역형의 세 가지 적응양식과 Cloward & Ohlin의 하위문화이론에서 범 죄문화, 갈등문화, 은둔문화의 세 범주의 분류에 근거하여 청소년 비행을 재산비행(절도, 강도 등), 폭력적 비행(주먹싸움, 패싸움, 건물기물 파손 등), 은둔적 비행(음주, 환각제 사용, 성관계, 흡연, 금지장소 출입, 노름 등), 의도적 반항(무단결석, 가출, 정학 및 부모에 대한 반항 등)으로 분류하여 근로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을 비교 연구한 바 있다. 특히 김준호(1990)는 청소년비행을 비행행위 중심, 비행자 중심, 비행행위와 비행자를 종합한 관점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비행을 성인의 경우와 달리 법률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일탈행동 뿐만 아니

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 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부도덕 행위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현황 및 문제점

1.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의 의미들

일반적으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역학적(疫學的, *epidemiological*) 관점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두가지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전자는 청소년 비행의 억제책으로서 스포츠의 역학적, 사회학적 기능에 관심을 둬으로써 스포츠참가가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방지에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역학적 관점에서의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 참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학적 변인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 반면에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역동성의 규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스포츠 참가자가 비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저지르지 않게 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스포츠 참가와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분야는 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참가의 정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를 통한 가치 학습과 비행의 관계, 비행 통제와 관련된 스포츠의 구조적 요인 등 비행의 억제 및 방지에 기여하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변인의 규명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들의 집약적인 결과는 스포츠 참여와 비행간의 부정적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영역에서 밝혀진 이론과 연구를 고찰할 때 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비행의 관계, 운동 선수와 비운동선수의 차이, 남녀간의 성차,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집단내에 존재하는 비행 수준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할 지 모르나,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 및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의 유형과 청소년 비행의 억제 요인에 관한 내용, 비행예방 및 치료로서의 Outward Bound의 효과 그리고 스포츠참가와 관련된 약물복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반된 연구결과의 유형

(1) 부정적인 관계의 연구결과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체육교사, 교육자, 교육사회학자 및 교도관들에 의하여 스포츠 활동을 이용하여 청소년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즉 개인이 지닌 활동의 내재된 요인을 스포츠에 전이시킴으로써 범죄 행위로 일탈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사례는 19세기 중엽 스포츠가 사회적 통제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영국 공립학

교에서 실현되었으며, 이와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소매치기, 전달패 근성, 문화파괴 행위, 유주 백같은 행위를 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Betts(1974)는 “운동은 무모한 용기에 대한 건전한 배출구이다”라고 역설하였으며, Otto와 Alwin(1977)은 “비행자의 스포츠 참여가 인간 상호관계의 연결망 *network*, 접촉, 그리고 성공에 유익한 정보 경로를 제공해주며 직업적인 기대와 성취, 그리고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atza(1964), Schafer(1969), Renberg와 Schafer(1968) 등은 운동경기참여자는 교육적인 태도, 기대, 행동 면에서 운동경기 비참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도록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Coleman(1965)은 학교간 체육 혹은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학교에 대한 반발이나 낙제율, 청소년 범죄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스포츠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는 반복이론 및 세력과잉설과 관련된 놀이의 양면성을 통하여 연합되어진다. 19세기 말엽까지 흥미를 지녔던 반복이론은 개인들이 타고난 결함은 다만 반복된 놀이를 통하여 해결될 뿐 놀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때, 그 결과로서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세력과잉설은 19세기 초반부터 발달되었는데, 에너지가 지닌 수압적인 특성, 즉 일하는데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는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던 Spencer(1896)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한편, Fichter(1959)는 운동 선수들이 만약에 운동 선수가 되지 못하고 나쁜 일에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면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농구공을 익숙하

게 다룰 수 있는 농구 선수가 나쁜 행동을 익히는데 그 에너지를 활용하였다면 재빠른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스포츠가 비행을 통제할 수 있고 일탈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Donnelly(1981)에 의하면 최근에는 운동 선수 자신이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비행, 범죄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 비행을 억제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신뢰성을 더해 주고 있다.

Segrave와 Chu(1978)의 보고에서는 운동경기의 참여가 다른 관습적인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urhman(1977)은 인기도가 높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 운동 선수는 인기도가 낮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보다 "법정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urhman의 연구 결과는 또한 2가지 이상의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 운동 선수가 단지 한 종목에만 참여하고 있는 운동 선수에 비하여 법정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현저하게 적다고 지적하였다. Burhman과 Bratton(1978)은 후속 연구에서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중 2가지 이상의 스포츠에 참여한 여학생이 단지 한 종목에서 경기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에 비하여 법정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Segrave(1972)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있어서 운동경기 참가자 및 남녀운동선수에게 비행에 관한 자기

보고 질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비행행동에 응답한 운동선수의 비율이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1983년의 연구에서도 또한 운동 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비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Segrave와 Hastad(1984)는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경기 참가와 비행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운동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하여 비행행동이 적은 것으로 또한 운동경기가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메카니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린(1986)은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에 규칙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이 비참가자에 비하여 가정생활 비행, 학교생활 비행, 사회생활 비행이 낮다고 보고함으로써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 비행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김관훈(1988)은 운동선수의 비행요인에 관한 경로 분석적 연구에서 운동 경기 참가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직적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청소년 비행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창모(1991)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도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낮으며 특히 자아개념,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문헌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되는 사실은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비행의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며, 그 이유로서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갈등, 좌절, 불안, 공격성 등을 효과적으로 분출하여 주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2) 긍정적인 관계의 연구 결과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관계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스포츠 참가자는 스포츠내의 구조적, 문화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인가된 폭력, 공격, 위반 등과 같은 비행행동을 내·외적으로 습득하고 내면화한다는 결과(Luschen, 1971; Faulkner, 1976; McMurty, 1974; Neron, 1977; Vaz, 1972)와 비행집단은 스포츠클럽으로 부터 발생한다는 보고(Thrasher, 196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Johnson(1983)은 최근 대학 운동선수들에 의한 비행유형은 음주운전, 마약복용, 여자희롱,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Yiannakis(1980)은 스포츠 활동과 비행 사이에 일반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역설하면서 전형적인 스포츠 환경은 비행전의 청소년이나 비행성향이 있는 청소년에게 아무런 의미나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Landers와 Landers(1977)의 주장에 의하면 운동 선수와 다른 유형의 과외 활동 참여자간의 비행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Needleman & Needleman(1979)은 스포츠는 비행을 억제하거나 조장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억제요인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

내는 연구 결과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이 스포츠참가 자체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egrave, 1983; Segrave & Hastad, 1984a, 1984b; Schafer, 1976). 즉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과정을 분석한 결과 비행의 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에 대한 애착 *attachment to school*: 비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학생, 교사, 학교의 결속력을 들 수 있는데, 운동선수는 학교를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교사나 감독, 코치로부터 학문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계층 상승의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Phillips & Schafer, 1971; 김관훈, 1987; 구창모, 1991).

(2) 자아개념 *self-concept*: Reckless(1961)에 의하면 부적절한 자아개념을 갖고있는 청소년은 비행에 빠지기 쉽다고 하면서 운동선수는 비운동수에 비해 건전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urhman & Bratton(1978) 역시 *self-image*가 높을수록 비행은 낮아지고 스포츠 참여는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3) 미래진장인지 *perceptions of future strain*: 일반적인 행동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문화적 목표나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에서 발생하게 되는데(Merton, 1957), 외국의 연구결과의 경우 사회계층, 정신적 능력, 부모의 격려, 학업적 성취 등이 통제된다면 운동선수는 비운동선수보다 높은 교육적, 직업적 원망 수준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Bend, 1968; Otto and Alwin, 1977; Renberg and

Schafer, 196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김관훈(198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래진장인지는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 집단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운동선수와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경우 교육제도의 차이, 학업 성취 및 교육포부 수준, 선수생활의 여건, 사회적 분위기 등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비행동료 *delinquent associates*: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동료 행동에 쉽게 가담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행동료집단의 가치와 규범에 순응을 잘하는 편이므로 비행 동료에 의한 비행접촉은 청소년들의 비행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혼돈된 가치관이 만연됨에 따라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체제 아래서는 청소년들이 지위적 욕구불안과 자아존중의 상실이 라는 적응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지위와 사회적 인정, 자아존중의 새로운 기준에 바탕을 둔 비행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Jonson(1979)에 의하면 운동선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비행 청소년의 영향보다는 일반 사회규범에 적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행에 빠지지 않게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비행적 가치 *value orientations*: 비행적 가치란 비행에 대한 개인의 의견 및 생각이나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유희경(1986)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과 비행적 가치간에 $r=.633$ 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비행적 가치는 최종 종속변인인 비행에 강력한 직접적

영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이 비행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즉, 비행을 얼마나 발생하기 용이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또는 개인적으로 비행에 대하여 얼마나 허용적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 등이 청소년의 비행을 예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Hastad 외(198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하여 비행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이며(경미한 행동도 비행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 결과적으로 비행행동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Ferdinand(1966)에 의하면 운동선수는 대부분의 성인이 경험하지 못한 전통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되며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비행행동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 제한된 기회의 인식 *perceptions of limited opportunities*: Elliott(1962)는 비행은 보다 낮은 직업적, 교육적 기회나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중하류 계급의 비행 청소년은 일반 학생보다 미래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는 직업 획득의 기회나 직위·수입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일반학생에 비해 제한된 기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제한된 프로의 시장이나 수요 공급의 불일치, 종목간의 불균형 등으로 많은 선수들이 직업적인 기회 획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차별적인 관계 *differential association*: Sutherland를 비롯한 많은 사회학자들은 비행

이런 비행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높은 비행률을 가진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낮은 비행률을 가진 학교의 학생보다 비행 발생률이 크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조직적인 스포츠 집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집단내부의 규칙이나 행동기준, 선수들 간의 금지조항, 코치의 영향력 등으로 비행적인 환경에 접할 기회가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가설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는 Reiss, Gold, Cohen 등이 주장한 비행은 약한 사회적 통제와 결과이며, 부모나 사회·국가 등의 기관으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덜 비행적이라는 견해와 차별적인 관계의 대상이 '통제'일뿐 그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다.

(8) 권태 *boredom*: 권태란 할 일이 없다고 느끼거나 지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Bordua (1960)에 의하면 비행은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잘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하여 방과후나 주말에 스포츠 활동에 그만큼 더 참여하기 때문에 권태감을 덜 느끼며 따라서 비행화의 정도도 낮다고 볼 수 있다(구창모, 1991; Hastad 외, 1986).

(9) 분류표시의 결과 *result of labelling*: 비행은 행동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행동의 사회적 기준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정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Erickson, 1964). 또한 Becker(1963)에 의하면 사회집단이 사람들의 위반행위가 비행으로 구성되었다는 규칙 제정을 통해 어떤 특정인에게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고 그들을 'outsider'로 표시함으로써 비행자로 분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공적

인 이디지 관리 등으로 일반학생에 비해 비행행위의 과정 및 결과를 명확하게 조사 발표하는 경향도 적을 뿐더러 선수 스스로도 건달보다는 영웅에 대한 자아의식이 높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나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외국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비행예방 및 치료로서의 Outward Bound
Outward Bound는 대서양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바다 상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기위해 1941년 웨일즈의 Aberdovey에 설립된 학교가 그 시초이다. 현재는 Outward Bound의 신체적 도전 및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Outward Boun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신체훈련과 캠핑, 요리, 독도법, 1인 생존법, 특수 장비 사용법 등의 기술훈련 그리고 안전훈련, 팀 훈련 등이다. 이러한 Outward Bound의 프로그램속에는 최소한의 정규적인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소규모 집단활동과 그에 따른 집단위주의 행동기준, 동료집단의 기준으로 부터 자기 테스트의 기회, 도전적인 체육환경, 규칙으로 부터의 자유로움, 스킬, 즐거움, 신기함,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Outward Bound는 부정적이거나 반사회적 구성요소를 제외한 비행의 대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gden, 1979).

일반적으로 비행행위가 비행자 개인의 사회적응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는 당위적인 것이란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범죄행위의 결과를 일으키지 않고 비행과 동일한 사회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적 대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Outward Bound는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혼란시키지 않고 합법적인 제도내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을 어기거나 권위에 대한 반항과 같은 비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경험케하므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Outward Bound의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로 비행청소년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Kelly and Bare(197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콜로라도, 미네소타, 허리케인 등의 Outward Bound 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참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의 부모 생존 여부, 기소 경험 및 횡수, 죄의 유형, 거주지역, I.Q, 종교 등 발달적, 의학적, 가정적, 교육적, 비행적 배경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Outward Bound의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에게 인내심, 복종심, 성취심, 문제해결 및 위기극복 능력, 자신감의 개발, 적극적인 사고 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Yiannakis(1980)는 Outward Bound가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비경쟁적인 환경속에서 개인의 노력과 상대방과의 협동을 통하여 신체적 고난을 극복하므로써 문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스포츠 참가와 약물복용

스포츠 참가와 약물복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주로 외국의 연구결과로서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는 약물 복용의 근본적인 목적(운동능력향상, 즐기기위해), 스포츠 종목의 특성(근력, 지구력, 인내심 등이 특히 요구되는 운동), 상황적 요인(권태, 스트레스, 코치·팬·동료의 기대)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연구결과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Anshel, 1991).

(1) 신체적 이유

- ① 고통이나 부상 등에서 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준다
- ② 힘이 급격히 증가하여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 ③ 경기에서 보다 경쟁적이 되게 도와 준다
- ④ 체중조절을 도와준다

(2) 심리적, 정신적 이유

- ① 타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강해져야 한다
- ② 스스로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이다
- ③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용한다
- ④ 지루함이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극 추구의 수단이다
- ⑤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시켜 준다
- ⑥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동료 집단의 억압 때문에 복용한다
- ⑦ 약물을 복용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흥미를 위한 실험적 이유때문에 복용한다.

한편 English(1987)는 비행을 행위 자체로 이해해선 안되며 행동이 주어진 상황이나 문화

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차단된 성취할 수 없는 목표
- ② 집단에서 일체감의 표현
- ③ 불안,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
- ④ 자신의 자아정체감의 확인
- ⑤ 성인과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반항
- ⑥ 승리를 해야만 하는 심리적인 부담

또한 그에 의하면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선수가 자신의 건강에 상관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댓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팀의 동료나 상대 선수에게 알리는 전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 연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연구에 있어서 스포츠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해 비행수준이 낮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짙는데 이는 연구방법의 미흡, 부적당한 표집, 빈약한 이론적 개념,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측정 및 정의의 차이 등으로 연구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특히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연구에 채택된 대부분의 이론, 방법론, 정의, 결과, 문제 제기 등은 깊이 있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제한적인 면이 강하다(Segrave and Hastad, 1984). 즉, 스포츠 참가가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는 매우 드문 편이다. 스포츠 참가가 실제로 개인의 비행 성향을 감소시키는지, 스포츠 프로그램 과정중 다른 어떤 요인이 비행요인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만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가 만족할 만하고 가치있는 결과를 제공하였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근거있는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단계로 보여진다. 이는 스포츠 참가가 비행의 억제책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증거를 제공해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본질적으로 기술적이며 사회조직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비행참여를 유도하거나 방지한다고 가정되는 스포츠 참여자들의 개인적, 사회적 스포츠 경험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를 입증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행청소년은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낮고(자율적인 비조직 활동이라도), 공식적인 스포츠 조직에 가입하더라도 스포츠 팀에서 축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 집단의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대부분 심각한 비행의 경우)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조직 스포츠는 어른들이 지원·격려하고 지나치게 승리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직 스포츠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오히려 의미있는 학습의 경험 및 기회를 박탈당하고 조직적인 입력 등으로 결국 스포츠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포츠 집단으로 부터 축출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행성향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스포츠 프로그램에 잘 견디어내는 학생들은 정상 청소년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

은 비행 성향이 강한 청소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역학적(疫學的, *epidemiological*)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Segrave, 1980). 첫째 역학적 측면에서는 운동선수간에 비행의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운동선수는 다른 유형의 활동 참가자에 비하여 비행적인가?, 운동선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비행이 존재하는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비행적인가?, 운동선수의 연령에 따라 비행의 유형이 다른가? 등에 관한 문제이다. 즉 그는 운동선수와 비행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단지 부분적인 해답밖에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역학적 측면에서의 스포츠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혼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의하여 스포츠 참여와 비행간에 많은 관계가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관계는 계속되는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운동선수가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 및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즉, 운동선수가 비행에 적게 참여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 운동선수는 일반학생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사회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행을 적게 저지르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기회가 적어서인지? 스포츠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비행억제의 원칙이 있는지, 혹은 있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운동선수의 비행가담에 실제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

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Segrave and Hastad(1984)는 현재의 연구결과로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무시한 채 과학적 지식으로만 취급하고, 스포츠와 비행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관점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비행 연구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식통계, 피해자조사, 자기보고 등의 문제점으로 김준호(1990)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공식통계는 알려진 범죄를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숨은 비행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범규의 변화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법당국의 의지가 개입되기 용이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피해자조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모집단 조사가 불가능하고 모든 비행을 다 포함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자기보고식 연구는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비행 연구의 문제점으로 비행의 개념에 대한 하위 차원 즉 죄질, 종류, 빈도, 간격, 증후군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미국의 이론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려는 성향 그리고 연구대상을 학교 재학생으로 국한한 채 음주·흡연 등의 사소한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IV. 앞으로의 과제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비행행동에는 인구학

적 변인, 사회구조적 변인, 사회문화적 변인, 사회구조의 인식과 관련된 변인, 인성변인 등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Haskell & Yablonsky, 1978), 스포츠참가와 비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대부분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운동경기와 관련된 변인으로 학문적 성취, 교육기대, 지위달성, 순응 및 사회성, 자아개념 등을 들 수 있는데(Loy & Kenyon, McPherson, 1978), 이러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정적인 관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행연구에서 이용되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공식적 기록, 자서전적 자료, 자기 보고 자료, 관찰 및 면담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식적 기록은 특정 사회의 비행 다발 지역과 수 및 비행자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역학적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으며, 자서전적 자료는 비행행위자가 되는 과정이나 되지 않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효과적이다(Shaw, 1930). 또한 자기 보고 자료는 비행행위의 원인론적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Hardt & Peterson-Hardt, 1977), 관찰 및 면담은 비행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숨은 비행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egrave와 Hastad(1984)는 지금까지의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연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연구에 실패한 이유는 연구의 틀이 Social Facts

Paradigm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Social Facts Paradigm이 갖고 있는 한계와 발전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Social Definition, Social Behavior, Marxian Paradigm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Social Facts Paradigm ; 스포츠, 비행 등 관련 변인을 정리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전통적인 방법의 패러다임으로 이는 역학적 측면이나 기술적 분석은 가능할지 모르나 매개 변인을 모두 포함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심리적 과정의 접근 방법으로서도 타당치 못하다.

Social Definition Paradigm : Social Definition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Social Facts가 아닌 Social Acts이며 이러한 행동은 객관적 활동의 반영과 성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정의의 제도적 과정이 결정되는 방법 즉, 누가 비행적이며, 무엇을 비행이라고 하는가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므로써 사회적 과정으로써 스포츠와 비행의 관계를 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다. 한편 이 패러다임을 통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스포츠 참가자가 어떻게 비행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이는 스포츠 참가자가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사회통제하에 있거나, 비행에 가담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인가?
- 그들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비행에 집할 기회가 적어서 인가 그리고 당국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인가?

- 스포츠 경험속에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원칙이 있는가 혹은 있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Social Behavior Paradigm : 이 패러다임은 개인과 그의 환경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행동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거시적인 구조와 제도가 개인을 통제하는 요소라고 강조하는 Social Facts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여기서는 강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스포츠 참가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되는가?
- 스포츠 참가자들은 보다 나은 내적인 감정 억제제를 제공받는가?
-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스포츠 경험에서 환경적 자극의 성질은 무엇인가?
- 어떤 스포츠 유형이 비행을 재사회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가?
-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적 스포츠나 비공격적 스포츠, 높은 위험도나 낮은 위험도의 활동중 어떤 유형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가?
- 스포츠참가와 청소년 비행연구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Marxian Paradigm : 지배적인 가치 체계와 사회화 과정의 조정을 비판하는 이 패러다임은 비행의 의미가 담긴 기본적인 사회 구조의 이해를 통하여 비행을 비이성적인 상황에 대한 이성적 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 패러다임은 비행연구에 있어서 권력집단의 역할(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비판하고 있으며, 사회적 질서의 창조와 스포츠의 사회적 위치를 토대로 스포츠의 사회적 구조와 개인 비행의 사회적 구조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패러다

임은 스포츠참가와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보다 깊이있게 통찰할 수 있도록 제시한 예일 뿐 어느 한 패러다임이 월등하거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은 아니다.

끝으로 스포츠참가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하거나 강조해야 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는 특히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스포츠에 참가하게되는 모든 메카니즘과 스포츠 조직이 나라마다 다르고 그 사회에서의 스포츠에 대한 가치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스포츠 참가와 비행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문화적 요인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음주가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 해롭지않다고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스포츠 참가와 음주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에서의 이들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문화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독립변인의 인과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분석에서 모든 종류의 변인을 모두 결합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동을 초래한다. 즉 청소년 비행의 실제적인 결정 요인은 비행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유도하는 객관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비행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측정 척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무엇을 비행이라 할 수 있으며, 누가 비행적이며 또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비행의 유형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적정한 가중치 설정을 위한 분류 기준 및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넷째, 연구의 대상을 대도시의 중·고등학생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근교청소년이나 농어촌 학생 등을 포함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주로 조직 스포츠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탈피하여, 비조직 스포츠와 자율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보다는 「조직 스포츠의 참가가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등 스포츠 참가 및 비행의 유형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구창모(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관훈(1988). 운동경기 참가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동진(1988). 스포츠태도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영모(1981). 한국인의 복지의식, 서울: 일조각.
- 김준호(1990). 사회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비행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청소년 연구원.
- 민병근 외(1978).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오늘의 청소년, 1(1), 중앙대학교 영신 아카데미 연구원, 한국 청소년 문제 연구소.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15집, 한국사회학회.
- 유희경(1986).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 제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번장(1986). 청소년 비행과 스포츠.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국사회체육진흥회.
- 정영린(1986).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Anshel, M.H.(1991). A survey of elite athletes on the perceived causes of using banned drugs in sport.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14, No.4.
- Becker, H.(1963). *Outsider: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 Bend, E.(1968). *The Impact of Athletic Participation on Academic and Career Aspirations and Achievement*. New Brunswick, NJ: National Football Foundation and Hall of Fame.
- Betts, J.R.(1974). *America's sporting heritage*

- 1850-1950. Reading, MA: Addison-Wesley.
- Burhman, H.G.(1977). Athletics and deviance: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ic participation and deviant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Review of Sport and Leisure* 2(June): 17-35.
- Burhman, H.G., and Bratton, R.D.(1978). Athletic participation and deviant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in Alberta. *Review of Sport and Leisure*, 3, 25-41.
- Cloward, R.A., and Ohlin, L.E.(1966).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ew York: The Free Press.
- Coakley, J.J.(1980). Play, games and sport: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young people, *Journal of Sport Behavior*, 3(3).
- Cohen, A.K.(1959).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R.K. Merton(Ed.), *Sociology today*, New York: Basic Books.
- Coleman, J.S.(1965). *Adolescents and the schools*. New York: Basic Books.
- Donnelly, P.(1981). *Athletics and juvenile delinquent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dolescent*, 16, 415-431.
- Duquin, M.(1977). Differential sex role socialization toward amplitude appropriation, *Research Quarterly*, 48.
- Durkheim, E.(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spaulding and simpson New York: Free press.
- Elliott, Delbert S.(1962). Delinquency and perceived opportunity. *Sociological Inquiry* 32(Spring): 216-227.
- Erikson, K.(1964). Notes on sociology of deviance, in Becker, H.S(editor), *The other side: Perspectives on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Faulkner, R.R.(1976). *Violence: Camaraderie and occupational character in hocke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port and social deviance, SUNY at Brockport.
- Ferdinand, Theodore N. (1966). *Typologies of Delinquency: A Critical Analysis*. New York: Random House.
- Fichter, J.(1958). *Parochial school: A sociological analysi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Greetz, C.(1972).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Deadelus.
- Hardt, R.R., & Peterson-Hardt, S.(1977). On determining the quality of the delinquency self-report method.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4, 247-261.
- Haskell, M.R, & Yablonsky, L.(1978). *Juvenile delinquency*(2nd ed.). Chicago: Rand McNally.
- Hastad, D., Segrave, J.D., Pangrazi, R., and Peterson, G.(1986). Causal factors of deviant behavior among youth sport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L. Vander Velden and J.M.Humphrey, *Psychology and sociology of sport*, New York: AMS press.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n J.W. Loy and B.D. McPherson and G.S.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 Johnson, J.A.(1979). Changes in self-concepts during a physical development program. *Research Quarterly*, 39, 560-565.
- Kelly, J.and J.Baer, (1971). Physical Challenge as a Treatment for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17: 437-45.
- Kenyon, G.S. and McPherson, B.D.(1981).
 Beom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 process of Socialization In, J.W. Loy and B.D. McPherson and G.S. Kenyon (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Philadelphia: Lea Fibiger.
- Landers, D.M., & Landers, D.M.(1977). Socialization via interscholastic athletics: its effect on delinquency. *Sociology of Education*, 51, 299-303.
- Lever, J.(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roblems*, 23.
- Levy, M.J. (1952). *The structure of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oy, J.W.(1969). *The study of sport and social mobility. Aspects of contemporary sport sociology*, G.S.Kenyon(ed). Proceeding of C.I.C. Symposium on the society of sport, Univ. of Wisconsin, 1968. Chicago, The athletic Institute.
- Loy, J.W., McPherson, B.D., & Kenyon, G.S. (1978). *Sport and social systems*. Reading, Ma.: Addison-Wesley.
- Luschen, G.(1967). *The interdependence of sport and 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AAHPER Meeting.
- Mantel, R.C. & Vander Velden, L. (197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 toward play of preadolescent boys and participation in organized sport. In G. Sage.(ed.), *Sport and American society*. Reading: MA: Addison - Wesley.
- Matza(1964). *Delinquency and drift*, New York: Weily.
- McCormack, J.B., & Chalip, L. (1988). Sport as socialization; A critique of methodological premis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25(1).
- McMurty, W.R. (1974). *Investigation and inquiry into violence in amateur hockey*;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under the public inquire.
- McPherson B.D., Curtis, J.E. & Loy, J.W. (1989).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Merton, Robert K. (1957).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October): 672-682.
- Merton, R.K.(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Neron, T.(1977). *La Violence an hockey*. Rapport Final De L'Etude Sur Le Violence Dans Le Hockey Amateur Au Quebec: Quebec Government press.
- Otto, L.B. and Alwin, D.F.(1977). Athletics, aspiration and attainments. *Sociology of*

- Education*, 42, 102-113.
- Parsons, T.(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L: Free Press.
- Phillips, John C, and Walter E. Schafer(1971). Consequences of participation in interscholastic athletics: a review and prospectus.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4(July): 328-338.
- Reckless, Walter. (1961). *The Crime Proble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enberg, Richard A. and Walter E. Schafer. (1968). Participation in interscholastic athletics and college expect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May): 732-740.
- Robert, J and Sutton - Smith, B. (1962), Child training and game involvement, *Ethnology* (1).
- Schafer, W.E.(1969). Participation in interscholastic athletics and delinquency: A preliminary analysis. *Social Problems*, 17, 40-47.
- Schafer, W.E., & Polk, K. (1967). *Delinquency and the schools*. In *Juvenile delinquency and youth crime: Task Force on juvenile delinquenc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egrave, J.O., & Chu, D. (1978). Athletics and juvenile delinquency. *Review of Sport and Leisure*, 3, 1-24.
- Segrave, J, and Hastad. D. (1984). Future Directions in Sport and Juvenile Delinquency Research. *Quest* 36(1), 37-47.
- Segrave, J.O. (1980). Delinquency and Athletics: Review and Reformatio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2.
- Segrave Jeffrey O.and Douglas N.Hastad. (1982). Interscholastic athletic participation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Sport Behavior*.5: 96-111.
- Shaw, C.R. (1930). *The jack roll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encer, H. (1896). *The principle of psychology*. New York: Appleton.
- Stevenson, C.L. and Nixon, J.E. (1976). A conceptual scheme of the social functions of sport: Yiannakis, A., McIntyre, T.D., Melnick, M.J. and Hart, D.P.(eds), *Sport sociology: Contemporary themes*.
- Sugden, J.P.(1979). *Sport and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Free Press.
- Thrasher.F.M.(1963). *The ga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z, E.W.(1972). *The culture of young hockey players: Some initial observations*. In A.W. Taylor(ed.), *Training: Scientific basis and application*. Springfield, IL: C.C.Thomas.
- Weiner, I.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Yiannakis, A. (1980). Sport and Deviance: A Review and Appraisal. *Mortor Skills: Theory Into Practice*, 4(1): 59-64.
- Yiannakis., Thomas, D., Melnick, M.J., & Hart, D.P.(1982). *Sport sociology: Contemporary themes(2nd ed.)*. Dubuque,

IW: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Yiannakis.A(1983). Delinquent tendencies and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sports

program, *The Research Quarterly* Vol. 47,
No. 4.